

종합·해설

광주·전남 '대선공약' 이것만은 꼭...

영산강 문화·관광 자원 개발 호남고속철 완공 시점 확약

오는 29일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첫 대선 경선후보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형 현안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복합문화단지·고령친화특구 개발

전남, J프로젝트 땅·F1 특별법 제정 지원

광주·전남 공동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

문화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주

의 첨단 문화와 전남 관광자원을 하

나로 묶기 위해 영산강 물길을 통해

광주~목포를 연결하는 사업. 영산

강을 문화·환경(생태)자원으로서

개발할 경우, 광주 문화도시·영산

강 관광자원·섬 등 전남 해안지역

관광자원 등으로 순환되는 국제 관

광 개발축으로의 조성이 가능하

다는 전망이다. 영산강 강변도로 건설

등이 핵심사업이다.

◇호남고속철 완공=광주·전남지

역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 설계중

인 호남고속철의 완공 시점을 확약

받아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매번 대

통령 선거 공약 등으로 대두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호남고속철은

아직도 반쪽짜리다.

◇호남고속철의 애초 계획은 익산~

광주 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

구간 2017년 완공이다. 시·도는 대

선 후보들로부터 완공 시기를 준수

해달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복합문화산업단지

건설=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

당만으로 광주를 세계수준의 문화도

시로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

생산·경제화 할 수 있는 복합문화산

업단지의 조성이 절실하다. 복합문

화산업단지는 문화전당의 잠재력을

문화상품으로 생산함과 동시에 문화

활동, 엔터테인먼트 등이 총괄적

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이다.

◇고령친화특구 개발=이 사업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으로,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좋은 광주·전남 접경지에 50만평~

100만평 규모로 특구를 건설해 최대

2만세대 6만명의 노인들이 거주하

도록 지구 개발 개념이다.

◇연구개발 특구 및 첨단의료복

합단지 유치=연구개발(R&D)특구

를 유치해 관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남도

◇2012 여수세계박

람회 유치 및 운영=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국가경제 재

도약의 발판이다. 따라서 각 정당이

이 대회 유치를 주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사후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적극 지

원=중국의 부상, 관광 물류산업의

성장 등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고

려해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뛰

어난 목포·무안·신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을 개발해 국가발전의 새

동력을 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

별법' 통과와 후속조치를 위해 정치

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J프로젝트 추진 활성화=서남

해안 관광패자 기업도시 조성사업(J

프로젝트)이 착수 단계이지만 해남·

영양지역 간척지 확보문제, F1(폴

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이 통과가 선결 과제다. 정당들이 사

업부처 확보와 특별법 처리에 앞장

서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李·朴 '경제 대통령' 대결 1라운드

〈명박〉 〈근혜〉

홍준표·원희룡 서민경제, 고진화 삶의 질 높이기 주창

■한나라 내일 광주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의 서막을 알리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 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등 '2강(強)' 후보들은 토·일요일이 가능한 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자신의 강점은 부각시키되 약점은 보완한다는 전략 아래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 전 시장=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 대통령'으로서 차별화를 확실하게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운하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온 전문가들이 최석의 입지조건으로 평가한 '한반도 운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대한민국 7.47 구상'(7% 경제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진입)을 설명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경제대

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겠다는 전략.

이 전 시장은 후보자간 상호 토론시간에서는 '한반도 운하' 공약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박 전 대표는 토론회를 통해 경제에는 약할 것이라는 세간의 선입관을 깨는 동시에 이 전 시장의 '경제대통령'론이 알맹이 없는 구호일 뿐임을 당원과 국민에게 알린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 원칙 하에 발표해 온 ▲성장 동력을 사람에서 찾아야한다는 '사람경제론' ▲'줄푸세' 운동(세금과 정부규제 줄이기, 규제 풀기, 법질서 세우기) ▲지도자의 경제리더십이 가져올 경제성장률 2%를 통한 '5+2%' 경제성장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며 경제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박근혜 경선전에 뛰어들어 홍준표 의원은 토론회에서 서민경제론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다. 성장이나, 복지나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지수)를 높이는 측면에서 경제 정책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경우, 한나라당이 서민과 소외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이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고진화 의원은 개발위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 전 시장의 한반도 운하와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3선 중진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창동 한나라당사에서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협뉴스

“한국 개조...서민 대통령 되겠다”

홍준표 의원 대선후보 경선출마 공식 선언

한나라당 3선 중진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영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는 낙관론이 한나라당을 집단취면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한나라당을 혁신해 집권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선 합류로 당 경선은 양자간이며 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의 맞붙는 5파전으로 치러 지게 된다.

그는 “1등 국가로 가기 위해 한국을 개조하고 내 자신 '일꾼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부문별 1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불허, 재벌상속에 대한 철저한 탈세감시를 통해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박 절감을 위한 EBS 독립 및 24시간 과외채널화 ▲고교평준화 제도 지양 및 분고사 부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절 ▲핵폐기 전제 북한 현대화 계획(북한관 마셜플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및 사병복무기간 20개월로 단축,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이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1등 주자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한반도 운하에 대해서 “난센스 중 난센스”, “환경 대재앙” 등의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홍 의원은 29일 광주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의 허실을 지적한다는 전략을 유지키로 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좋을게 없다”

朴 “나쁠게 없다”

한나라 경선 '홍준표 변수'

한나라당 3선 중진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당 대선후보 경선에 뒤늦게 합류, 향후 경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홍 의원이 당장 기존의 양강구도를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역할' 여하에 따라 주자간 회비가 있을지라도 경선구도에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점치는 시각이 많다.

홍 의원의 출마에 대해 양 주자 진영은 공식적으로 “경선홍행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으나 속내는 사뭇 달랐다. 당내에선 홍 의원의 출마가 박 전 대표보다는 이 전 시장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우리에겐 특별히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굳이 나쁠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other destination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s,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various tour options and prices.